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21.(금) 11:00 < 6.21.(금) 석간 > 배포 2024. 6. 20.(목)

위기관리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유지

- 수도권 발전설비 현장에서 여름철 수급 준비상황 점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와 전력 공공기관들이 여름철 준비로 분주하다. 이른 더위로 6.19(수) 전력수요가 80GW를 상회한 가운데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92.3GW에서 최대 97.2GW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해 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기가 정지되거나 송변전 설비의 고장 등이 발생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 폭우·태풍 등 위기 요인이 상존해있는 여름철에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21일(금) 수도권 대규모 발전설비인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전력수급 현장의 여름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중부발전 사장, 한전 부사장, 한수원 부사장 등이 모여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였다. 예비력이 부족해질 경우 단계별로 비상예비자원을 발동하고, 태풍·폭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 복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원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등을 점검·보수하는 예방조치도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여름철 기간 동안 전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전력유관 기관의 면밀한 사전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더운 여름철 기간 동안 불철주야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어제(2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였다.

담당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 개요**

❖ 올여름 **전력수급** 및 **핵심 전력설비** 준비상황 점검

□ 회의개요

○ 일 시 : ’24. 6. 21(금) 11:00~11:30 (30분)

○ 장 소 :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서울 마포구 토정로 56)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장관, 전력산업정책관, 원전전략기획관 등
- (유관기관) 거래소 이사장, 중부발전 사장, 한전 부사장, 한수원 부사장

□ 세부일정(안)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 시	내 용	비 고
~ 11:00	• **도착 및 이동**	(8층 대회의실)
11:00 ~ 11:25 (25’)	• **현황보고** ① **모두발언 (3')** ② 전력거래소 발표 (5') :「예비자원 현황 및 비상단계별 조치사항」 ③ 한수원 발표 (5') :「원전 안정운영 및 비상시 출력조정 계획」 ④ **토론 및 마무리발언 (12')**	*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11:25 ~ 11:30 (5’)	• **환송 및 기념촬영**	(1층 로비)